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계열사와 대학교에서 오픽 강의를 하고 있는 이소희입니다. 대학때 영어어문학과를 전공했고 과외와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영어 강사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 이후 6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학생을 만나며 영어 티칭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강사로서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싶어 연세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테슬 자격증을 취득하며 제2언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티칭 능력을 전문적으로 습득했습니다.

테슬은 저의 교육 가치관과 방법을 180도 바꿔놓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발화 시간(TTT)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테슬 공부 이후로는 학생의 발화 시간(STT)이 수업에 주를 이루도록, 한 번이라도 더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습자와의 라포 형성이 언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깨달아 한국인 영어 강사로서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 겪게 되는 고충을 마음 깊이 공감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Sohee Lee 강사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달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영어로 고통받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저의 꿈은 영미권 국가 어학연수나 거주 경험 없이 영어 공부를 해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성인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을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인 성인 학습자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발음의 차이를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영어 노출이 시작된 대학생들의 발음이 평균적으로 더 원어민 발음에 가깝고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잘됩니다. 반면, 직장인들 중에서도 중학생 때 영어를 처음 접해본 세대인 4~50대 학습자들의 발음은 평균적으로 더 한국식에 가깝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정적인 시기 가설(Critical period hypothesis)'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해당 시기가 지나면 제1언어(모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힘들다는 언어학 가설입니다. 결정적인 시기 가설이 정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달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영어로 고통받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듣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 해 주세요"와 "암기해 주세요"입니다. 갓난아이가 웅알이를 거쳐 한두 단어를 말하고 문장으로 발화할 때까지 부모와 셀 수 없이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년 이상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 하죠. 물론 제 2언어 습득 과정은 모국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두 과정 모두 얼마나 오랜 시간 언어에 노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단어와 표현을 체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국어는 방대한 인풋과

아웃풋으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지만 제 2언어는 끊임없이 원어민의 발화를 따라 하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물 묻히지 않고 설거지 할 수 없듯이 암기 없이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유용한 인터넷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이용해서 흥미로운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줌 수업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교재 PPT 자료뿐만 아니라 구글링, 유튜브, 넷플릭스, 문법 교정 프로그램, 첨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웹사

이트를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모든 학습자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면 집중도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학습자들이 음소거를 해놓고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듣고 피드백을 해줄 때 수업이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상 학습효과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여행에서



호주 여행에서



취미 생활 중~